



문화에 따른 양육방식: 한국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서 주로 나타난 원격 양육행동 패턴*

Received: July 14, 2023
Revised: October 15, 2023
Accepted: December 2, 2023

윤혜령¹, 최영은²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¹,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²

교신저자: 최영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Cultural Influence on Parenting Behavior: Distal Parenting Strategies Are Dominant in Korean Mother-Infant Interactions

E-MAIL:
yochoi@cau.ac.kr

Hyeryung Yoon¹, Youngon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M.A.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²

* 이 논문은 2022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해당 논문은 2022년 한국발달
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영상분석에 도움을 준 김민지
학생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ABSTRACT

부모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양육행동은 영아의 사회화 과정과 자기인식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거리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은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집단주의 문화권의 경우 근접 양육행동 패턴이 주를 이루고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원격 양육행동 패턴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체적 거리에 따른 양육행동 패턴을 살펴본 연구가 아직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 원격과 근접 양육행동 중 어떤 패턴이 주로 나타나는지 검토하고 양육행동과 문화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해보았다. 추가로,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행동 패턴과 영아 및 어머니 요인과의 관계성도 살펴보았다. 54명의 어머니-자녀의 자유놀이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어머니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주로 관찰된 근접 양육행동보다는 스코틀랜드와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난 원격 양육행동을 주로 보였다. 또한, 영아의 성별, 연령 및 가구의 연간 소득이 근접 및 원격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비록 양육방식의 제한적인 한 측면에서의 관찰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한국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영아의 초기 자기인식 발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달영역에도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양육행동, 원격 양육행동, 근접 양육행동, 문화적 영향



© Copyright 2023.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간은 태어난 이후 자신이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주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민현숙, 문영경, 2013)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관, 태도, 행동 등을 습득하는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우수경, 2005; Grewal & Salovey, 2005). 무엇보다 가정은 영아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이면서 부모와 영아의 초기 사회적 관계는 영아의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형민 등, 2008; Coleman et al., 2002). 특히, 부모의 양육목표와 가치관, 그리고 신념은 소속된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문화적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아 자녀 양육행동에 반영되는데, 이러한 양육과정에서 영아는 문화적인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받는다(Harris, 1998; Hoffman, 1988; Whiting & Edward, 1988).

이를 구체화한 Keller(2009)의 문화적 모델(Cultural model)에 따르면 개인주의 중심 문화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의 자율성과 표현이 중시되고 이러한 가치가 양육행동에 반영되는 데 비하여 집단주의 중심의 문화에서는 나와 타인 간의 관계, 나와 주변과의 관계를 중시하므로 이러한 가치가 양육방식에 반영된다고 한다(Greenfield et al., 2003; Holden et al., 2022; Keller, 2009; Keller & Kärtner, 2013). 예컨대, 비서구권의 전통적인 농업 국가(주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순종과 사회적 위계가 중시되면서 오직 또래만이 영아의 놀이 상대로 고려되기 때문에, 영아가 어머니와 함께 놀이하는 상황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Keller, 2018), 어머니가 영아와 상호작용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한다(Lavelli et al., 2019; LeVine et al., 1994).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 특성상 감정 표현과 같은 자기표현적 행동이 사회적 규범

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다(Bader & Fouts, 2018; Otto, 2014). 이때 어머니들은 명령적이거나 지시적인 발화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신체 접촉(body contact), 신체적 규제(bodily regulation)와 같은 근접 양육행동(proximal parenting)을 주로 사용하면서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Kagitçibasi, 1996; Keller, Kärtner, et al., 2005; Keller et al., 2006).

반면 서구 도시의 중산층 가정(주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율성과 자기표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어머니들은 영아를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영아의 욕구나 선호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양육태도를 보인다(Schmidt et al., 2023). 이러한 욕구나 선호도는 흔히 얼굴에 나타난 신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치는 행동을 주요 상호작용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eller, 2009; Keller et al.,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들은 영아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시에 언어적 소통을 함께 사용하여 영아의 의도, 소망, 욕구를 질문하는 등 전형적인 원격 양육행동(distal parenting)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er, 2016; Keller, Kuensemueller, et al., 2005).

실제로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코스타리카, 인도, 카메룬의 어머니와 자녀들의 자유로운 놀이 상호작용에서는 원격 양육행동보다 근접 양육행동이 훨씬 더 많이 관찰되었다(Keller, Kärtner, et al., 2005; Keller et al., 2009). 이와 반대로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미국, 독일, 그리스의 경우, 근접 양육행동보다 원격 양육행동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Keller, Kärtner, et al., 2005; Keller et al., 2009).

문화적 신념과 연관된 발달 초기 부모의 원격 및 근접 양육행동은 15개월에서 2세경에 형성되는 객관적 자기인식(self-recognition) 능력(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능력) 발달의 양상(Lewis & Ramsay, 2004; Nielsen et al., 2003)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Ross et al., 2017). Ross 등(2017)에 의하면,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스코틀랜드의 경우, 어머니와 유아 간 상호작용에서 눈 마주치기와 같은 원격 양육행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들의 15~18개월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다른 대상과 인과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적 맥락 속의 객체로 인식하기보다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자율적 맥락에서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잠비아에서는 어머니가 신체 접촉과 같은 근접 양육행동을 주로 보였고, 영아들의 자기인식이 독립적이기보다 관계적인 형태로 발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Ross et al., 2017).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문화로 여겨지는 인도와 튀르키예에서는 두 양육행동의 혼합된 양상이 나타났는데(Kärtner et al., 2012; Ross et al., 2017), 튀르키예 영아들 또한 양육행동의 혼합과 유사하게 관계적 자기와 더불어 독립적 자기인식이 동시에 발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Ross et al., 2017). 이는 부모의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양육행동이 발달 초기 자기인식 발달 양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결과였다.

하지만 한국의 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부모가 영유아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검토된 바가 없었다. 한국은 과거에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로 알려져 왔지만(한규석, 신수진, 1999; Triandis & Gelfand, 1998), 급속

한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적 역동(예, 1997년 IMF)으로 인해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였다(정선영, 2021; Inglehart & Welzel, 2005).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에 부여하는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정선영, 2021; Inglehart & Welzel, 2010), 개인의 성취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박현경, 이영희, 2004) 한국의 사회문화적 가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을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과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고, 부모 또한 양육목표를 주로 학문적 성취에 중점을 두면서 또래 간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Bornstein & Cheah, 2013). 이로 인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 유지와 개인주의적 가치 추구 사이에 상충을 경험하면서(Park & Cheah, 2005) 전통적인 가치에서 더 다변화되고 혼합된 양육행동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도 문화적 가치에 따른 부모의 양육가치와 행동을 살펴본 연구들(김수연, 2009; 박성연 등, 2000)이 있었다. 특히, 개인의 표현을 중시하는 가치를 지닌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행동을 억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박성연 등, 2000), 자녀의 행동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김수연, 2009). 그러나 문화적 가치에 따라 발달 초기에 주로 사용되는 양육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근접-원격 양육행동의 관찰 및 분석 방식(Keller et al., 2009; Ross et al., 2017)을 참고하여 한국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양육행동 패턴을 살펴보고, 간접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스코틀랜드, 튀르키예, 잠비아의 패턴(Ross et al., 2017)과 주요 패턴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유사한 상호작용 장면에서 한국 어머니들이 근접 양육 행동 패턴을 주로 보인다면 관계와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가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격 양육행동을 주로 보인다면 최근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개인의 자율과 표현을 중시하는 가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두 양육행동의 혼합된 양상을 보이면서 기존의 집단주의 가치와 개인주의 가치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연령 범위의 14~20개월 영아들이 어머니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구축한 기존의 영상 자료(김윤지 등, 2020)에서 Ross 등(2017)의 연구와 유사한 상호작용 장면을 추출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 시기는 발달 초기 객관적 자기인식이 출현하고 발달하는 시기로, 문화적 신념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이 다른 발달영역과 더불어 자기인식 발달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자기인식 발달을 직접 측정하고 관찰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시기 부모의 양육행동 양상을 검토하여 후속 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직접 비교는 아니지만 최대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자 선행연구와 동일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Ross 등(2017)에서 사용한 시간표집 기법(time-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추출된 영상을 5초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양육자가 원격 양육행동과 근접 양육행동 유형 중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코딩하고, 그 빈도를 추출하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자료

와 패턴을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양육행동 분석을 위해 컵을 사용하여 놀이하도록 하고, 이 장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에도 선행연구와 같이 컵 사용 놀이 장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다른 물체(예, 모자나 빗, 장난감 과일이나 인형 등)를 이용한 놀이 장면도 많이 확보되어 있어 컵이 아닌 다른 물체가 포함된 상호작용이 다른 형태의 양육행동을 유발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성별이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양육행동 패턴과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Keller et al., 2004, 2009)에 근거하여, 영아 및 어머니 요인들이 양육행동과 관련성을 보이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은 근접 및 원격 양육행동 패턴 중 어떠한 패턴을 주로 보이며, Ross 등(2017)에서 보고된 국가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어느 국가의 양육행동 패턴과 가장 유사한가? 둘째, 영아 성별, 연령 및 어머니 사회경제적 지위가 근접 및 원격 양육행동 패턴과 관련성을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4개월에서 20개월 영아와 어머니 70쌍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윤지 등(2020)이 2017~2019년에 수집한 어머니-영아의 영상 자료 중 후속연구 사용

에 동의를 받은 자료를 선별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양육행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Ross 등(2017)은 어머니에게 컵을 제공하고 영아와 놀이하도록 한 후, 가정 내 또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외부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컵 놀이 상황이 포함된 구간을 중심으로 자료를 추출하였고, 컵 놀이가 포함되지 않았던 16쌍을 제외하여 영아($M = 17$ 개월, $SD = 1.75$ 개월, 남아 29명)와 어머니 총 54쌍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던 어머니 5명을 제외하여 49명의 어머니 교육수준과 가구의 연간 소득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어머니 교육수준의 범위는 12년에서 20년으로 평균은 15.76년, 표준편차는 1.8년이었다. 가구의 연간 소득 범위는 2천만원에서 1억 원이었으며, 그 중 4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속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절차 및 측정방식

Ross 등(2017)에서 관찰된 스코틀랜드, 튀르키예, 잠비아의 양육행동 패턴을 한국의 패턴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시간표집 방법과 양육행동 코딩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컵 놀이 상황과 비교하기 위해 컵을 이용한 놀이 장면을 5초 구간씩 18개를 추출하였다. 추가로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상호작용 패턴이 물체의 범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컵과 같이 신체적 접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모자와 빛이 포함된 영상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체 접촉을 덜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인형과 과일모형이 포함된

장면도 5초 구간으로 18개 추출하였다. 어머니와 영아 54쌍의 자료 중 두 물체 범주에 따라 각기 18개씩 총 36개의 구간이 온전히 추출된 자료는 47쌍이었으며, 나머지 7쌍의 경우 36개의 구간을 추출할 정도로 해당 물건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간 수가 도출되었다: 23개 구간($n = 1$), 28개 구간($n = 2$), 30개 구간($n = 1$), 31개 구간($n = 1$), 32개 구간($n = 1$), 33개 구간($n = 1$).

양육행동 코딩(Parenting behavior coding)

Ross 등(2017)의 코딩 기준을 참고하여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서 상호 눈 마주침(mutual eye-gaze), 언어적 접촉(verbal contact), 신체 접촉(body contact) 및 지시적 행동(directive action), 총 4가지 행동을 측정하여 각 행동의 빈도를 계산하였다. 이중 상호 눈 마주침과 언어적 접촉은 원격 양육행동으로 분류되고, 신체 접촉과 지시적 행동은 근접 양육행동으로 분류된다.

상호 눈 마주침은 어머니와 아이의 얼굴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눈을 마주친 적이 5초 구간 내에 1회 이상 관찰되면 코딩하였다. 촬영 당시 카메라 두 대로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혹은 아이의 시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예, 화질이 저하된 영상, 몸의 일부분이 화면 밖으로 나감 등)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시선을 확인하거나, 머리카락의 방향을 확인하여 영상을 코딩하는 두 명의 연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상호 눈 마주침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언어적 접촉의 경우 5초 구간 내에서 어머니가 발화한 문장의 수를 세어 코딩하였는데, 이때 주어와 목적어가 자주 생략되는 한국어 특성(김윤성,

최영은, 2023; 박청희, 2012)을 고려하여 발화에 주어나 목적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예, “곰인형이) 바나나 먹고 싶대.”, “엄마도 (컵) 줘.”)도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하였다. 언어적 접촉 중에서 ‘이리 와’와 같은 언어적 지시(verbal direction)의 비율은 별도로 계산하여 언어적 접촉의 하위유형으로 포함하였다.

신체 접촉은 5초 구간 내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잡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의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머니의 팔 길이 이내로 가까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였다. 지시적 행동은 5초 구간 내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예, 아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못하도록 손으로 아이의 팔을 잡아당김)를 포함하였다. 분석에는 ELAN(Version 6.4, 20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관찰자의 잠재적 편향성과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첫 번째 관찰자와 두 번째 관찰자가 전체 영상 중 30%($n = 16$)를 모두 이중으로 코딩하였다.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분석한 결과, 두 관찰자 간 신뢰도는 모든 양육행동 패턴에서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상호 눈 마주침 ICC = .98; 언어적 접촉 ICC = .96; 언어적 지시(%) ICC = .99; 신체적 접촉 ICC = .95; 지시적 행동 ICC = .94).

결 과

기술통계

표 1은 원격/근접 양육행동 하위유형의 국가별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먼저 한국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근접 양육행동과 원격 양육행동의 패턴을 비교하기 위해 비율 검정(proportional test)을 실시한 결과, 원격 양육행동의 비율(90.2%)이 근접 양육행동의 비율(9.7%)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p < .001$).

상호 눈 마주침($M = 6.0$, $SD = 3.7$)과 언어적 접촉($M = 39.0$, $SD = 7.6$)의 사용 빈도는 비교 국

표 1. 원격-근접 양육행동의 빈도에 대한 국가별 평균 및 표준편차
: 잠비아, 스코틀랜드, 튀르키예의 데이터는 Ross 등(2017)에서 가져옴

양육행동 패턴	평균(표준편차)				
	잠비아 ($n=33$)	스코틀랜드 ($n=21$)	튀르키예 ($n=22$)	한국 ($n=54$)	
				컵, 모자, 빗	동물인형, 과일모형
1. 상호 눈 마주침	0.6(0.2)	1.1(0.2)	0.57(0.3)	7.4(3.3)	4.5(3.4)
2. 언어적 접촉	7.8(0.8)	31.9(2.7)	19.5(2.3)	37.1(8.4)	41.0(6.1)
- 언어적 지시(%)	91%	27%	57%	13%	8%
3. 신체적 접촉	14.6(1.2)	6.7(1.5)	0.6(0.4)	4.7(3.0)	4.0(3.6)
4. 지시적 행동	9.9(0.9)	3.6(0.4)	8.0(1.5)	0.3(0.8)	0.7(1.4)

* 언어적 지시는 언어적 접촉의 하위유형으로 언어적 접촉 중에 포함된 백분율로 제시함

가 중 가장 높았고, 신체 접촉($M = 4.4$, $SD = 3.3$)과 지시적 행동($M = 0.5$, $SD = 1.1$)의 빈도는 낮은 편에 속했다. 지시적 행동의 경우 잠비아와 튀르키예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적 접촉의 사용 빈도에서 언어적 지시의 비율(10%)을 계산했을 때 비교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 한국 어머니들이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명령어나 지시어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 간 양육행동 패턴 비교

Ross 등(2017)의 연구에서 보고된 빈도를 포함하여 한국 자료와 함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양육행동 패턴은 잠비아($\chi^2 = 37.5$, $df = 3$, $p < .001$), 튀르키예($\chi^2 = 15.9$, $df = 3$, $p = .001$)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스코틀랜드($\chi^2 = 6.54$, $df = 3$, $p = .088$)와는 유의수준에 근접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행동 패턴은 스코틀랜드의 원격 양육행동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물체 범주에 따른 양육행동 빈도 분석

물체 범주에 따라 양육행동 하위유형 빈도가 달랐는지 분석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원격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상호 눈 마주침($Z = -4.66$, $p < .001$)과 언어적 지시의 빈도($Z = -2.52$, $p = .011$)는 컵, 모자, 빛이 포함된 범주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적 접촉의 빈도($Z = 3.52$, $p < .001$)는 동물인형과 과일모형이 포함된 범주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접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신체적 접촉($Z = -2.03$, $p = .054$)과 지시적 행동의 빈도($Z = 1.60$, $p = .092$)는 유의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작용에 활용되는 대상 물체가 양육행동의 다른 양상을 유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원격 양육행동과 근접 양육행동의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두 물체 범주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어(컵, 모자, 빛의 원격 양육행동 비율 90.6%, 근접 양육행동 비율은 9.3%, $p < .001$; 동물/과일 모형의 원격 양육행동 비율 89.9%, 근접 양육행동 비율은 10%, $p < .001$) 두 물체 범주 모두 한국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행동 패턴을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양육행동 하위유형 간 상관분석

관찰한 양육행동 하위유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먼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근접 양육행동 범주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지시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면서($r(52) = .304$, $p = .025$) 어머니가 신체적 접촉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시적 행동도 더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 양육행동 범주에서는 언어적 접촉이 언어적 지시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r(52) = .468$, $p < .001$), 이는 어머니가 언어적 접촉을 많이 사용할수록 언어적 지시도 종종 함께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 양육행동 중 상호 눈 마주침은 어떠한 양육행동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근접 양육행동인 지시적 행동과 원격 양육행동인 언어적 지시 사

표 2. 어머니의 근접-원격 양육행동 간 상관분석($n=54$)

		1.	2.	3.	4.	5.
원격 양육행동	1. 상호 눈 마주침	-				
	2. 언어적 접촉	.07	-			
	3. 언어적 지시	.15	.47***	-		
근접 양육행동	4. 신체적 접촉	-.06	-.07	.05	-	
	5. 지시적 행동	.19	.12	.34*	.30*	-

* $p < .05$. ** $p < .01$. *** $p < .001$.

이에 정적 상관이 나타나($r(52) = .344, p = .01$), 선행연구와 달리 언어적 지시가 지시적 행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였다.

영아 성별,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행동의 관계 분석

그림 1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영아 요인과 양육행동 하위유형 간 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영아의

성별에 따라 양육행동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자녀가 여아(25명)인 어머니보다 자녀가 남아(29명)인 어머니가 언어적 접촉($M_{남아} = 82.38, M_{여아} = 73.2; t(52) = 2.79, p = .007$)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지시도 유의수준에 근접한 차이를 보였다($M_{남아} = 9.28, M_{여아} = 6.56; t(52) = 1.80, p = .07$). 이러한 차이는 활동성이 높은 남아일수록 원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가 언어적 접촉을 주로 사용해야 했을 가능성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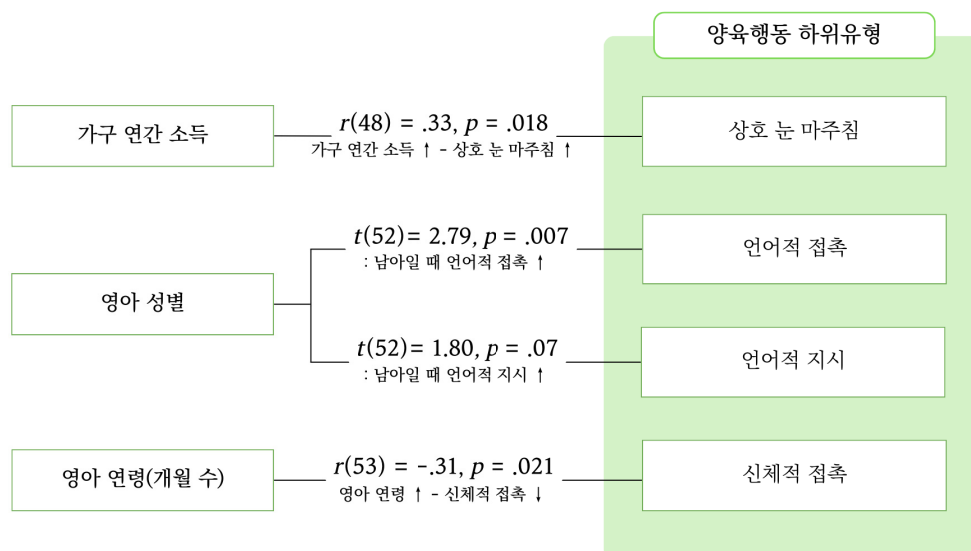


그림 1. 사회경제적 지위 및 영아 요인과 양육행동 하위유형 간 관계

사한다.

또한 영아의 연령(개월수)도 신체적 접촉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53) = -.312, p = .021$). 즉, 자녀의 개월 수가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신체적 접촉 사용은 감소한 것으로 남아의 경우에서처럼 자녀가 크면서 활동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년수와 양육행동의 관계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의 연간 소득은 상호 눈 마주침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r(48) = .334, p = .018$) 가구의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영아와 상호 눈 마주침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들이 14~20개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인 양육행동을 신체적 거리에 따라 분류하여 근접 양육행동(신체 접촉, 지시적 행동)과 원격 양육행동(상호 눈 마주침, 언어적 접촉)의 두 범주 수준에서 그 빈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양육행동의 사용 빈도가 어머니, 혹은 영아와 관련된 요인들과 상관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행동 패턴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관찰된 것과 반대되는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잠비아의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접촉과 지시적 행동과 같은 근접 양육행동이 주로 사용된 데 비해(Ross et al., 2017), 한국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서는 상호 눈 마주침과 언어적 접촉과 같은 원격 양육행동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이다. 게다가 근접 양육행동과 원격 양육행동이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났던 튀르키예(Ross et al., 2017)와도 다르게 한국 어머니들의 근접 양육행동 사용 빈도는 원격 양육행동보다 훨씬 적게 관찰되었다.

또한 원격 양육행동과 근접 양육행동의 전체적인 비율이 특정 물체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양육행동 패턴은 물체 범주(컵, 모자, 빛이 포함된 범주와 동물인형, 과일모형이 포함된 범주)와 무관하게 원격 양육행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개인의 성취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대 어머니들의 양육가치와 양육방식도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인도나 튀르키예와 같이 혼합된 양상의 양육행동이 관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권의 양육행동 양상이 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목표에 개인의 자율성, 자기 표현과 같은 서구적 가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대의 어머니들이 이전 세대의 어머니들보다 개인주의적 경향성이 높으며(김의철 등, 2005), 서구적 가치를 지닌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자기표현적 행동을 하도록 더 격려한다(박성연 등, 2000)는 선행연구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한국 어머니의 원격 양육행동이 현대 어머니와 양육자 사이에서 중시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한국 영유아의 자기인식 발달에서도 관계적 자기인식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기인식이 우선적으로 출현하고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화에 따른 부모의 양육방식이 영아의 자기인식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oesch et al., 2010; Kärtner et al., 2012; Ross et al., 2017). 본 연구는 영아의 자기인식 발달을 직접 검토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영아를 대상으로 자율적 자기인식과 관계적 자기인식 발달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 한국 어머니의 변화된 양육행동이 영아의 자기인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양육행동의 양상이 변화된 문화적 신념과 가치를 자녀에게 발달 초기부터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다면, 발달 초기 자기인식 발달 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집단 내에서의 개인의 역할 형성, 자녀의 문화적 가치 형성, 나아가 문화적 가치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타인에 대한 선택적 신뢰의 양상(예, Sebastián-Enesco et al., 2020)이나 주변 물체나 맥락에 대한 주의 패턴 형성 (Masuda & Nisbett, 2001; Senzaki et al., 2014, 2016)과 같이 다양한 발달영역에도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발달 초기 특정 양육행동의 변화가 실제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의 변화 양상을 어느 정도 일관되게 포괄적으로 반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양상이 발달 과정에서 지속될 지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발달 초기 양육행동은 문화적 가치 외에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 관찰된 패턴은 향후 더 다양한 대상이나 상황을 포함한 자료들에서 세밀히 재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한국의 5~7세 아동은 캐나다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다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어른일지라도 또래보다 어른을 더 믿

고 따르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문화가 자녀의 가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 여러 경로로 다양할 수 있으며 전통의 가치가 복합적으로 유지되도록 촉진하는 면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였다(범지민, 최영은, 2020; Oh et al., 2023).

무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의 비교는 직접 비교가 아니라 간접 비교였기 때문에 그 한계가 매우 크다. 최대한 동일한 분석 방식을 사용하면서 비교 가능한 빈도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을 해볼 수 있었으나, 같은 시점과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결과의 비교 해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양육행동 하위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 어머니의 원격 양육행동 중에서 언어적 접촉과 언어적 지시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부적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Ross et al., 2017)와 반대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방향성의 차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자료 구성과 수의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일 문화권에서 제한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반응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데 반해 선행연구는 여러 문화권의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였고 전체 자료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방향성이 더 명확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드러난 행동일지라도 양육자의 사용 의도가 문화적인 것 이외의 요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시선 교환이나 언어적 접촉과 같은 행동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반응적인 양육자의 태도(예, Masek et al., 2021)라는 신념에 기인하여 더 빈번히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육 행동이 문화적 가치 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더 빈번히 사용되거나 덜 사용되는지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 중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관찰된 또 다른 결과는 원격 양육행동의 하위유형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상호 눈 마주침은 같은 범주의 하위유형인 언어적 접촉 및 언어적 지시와 정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추론한 바와 같이 단일 문화권에서 얻어진 결과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었으나 한편으로 같은 원격 양육행동 범주로 분류되는 양육행동이라도 어머니마다 선호하거나 의존하는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두 양육행동 유형이 서로 연결되어 촉진하기보다는 각각 어머니-영아가 원격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방법일 가능성도 시사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여전히 단일 문화권의 제한된 자료로 도출한 결론이므로 추후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체계적인 직접 비교 연구를 통해 재검증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양육행동 양상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언어적 접촉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Eagly & Wood, 2013; Leaper et al., 1998)와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언어적 접촉을 더 빈번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언어적 지시가 남아를 대상으로 다소 높게 사용된 것은 부모가 남아에게 통제적인 발화를 자주 사용하고 더 많은 제한을 둔다는 연구 결과(McHale et al., 2003)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으나 추가로 성별에 따른 활동성이나 이동성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양육자 주변에 머무

르지 않고 자주 이동할수록 양육자는 원격으로 언어적 접촉을 더 시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인과관계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차이는 양육행동이 영아의 성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측면의 자기인식 발달을 지지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영아의 개월 수도 증가할수록 신체 접촉의 빈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Clarke-Stewart, 1973; Holden et al., 2022)에서도 관찰된 패턴이었다. 만 2세가 되면 모유 수유를 점차 중단하기 시작하고(Holden et al., 2022),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이전보다 이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Clarke-Stewart, 1973; Clarke-Stewart & Hevey, 1981)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신체적 접촉 사용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의 가치나 목표 외에도 영아 요인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상호 눈 마주침 사용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eller 등(2009, 2018)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원격 양육행동을 더 사용하고, 눈 마주침이 서구권 중산층 어머니들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하였는데(Lavelli et al., 2019) 이와 유사한 양상이 가구 소득을 통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과 양육의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집된 각 국가별 자료(잠비아 33쌍, 스코틀랜드 21쌍, 튀르키예 22쌍)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자료(54쌍)를 통해 양육행동을 분석하였고, 컵놀이 상황만 포함하였던 Ross 등(2017)과 달리 컵을 포함한 다양한 물체들과 관련된 놀이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상

이 물체의 속성에 의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서울과 경기도의 도심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코스타리카 내 도시와 시골 지역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을 비교, 분석하였던 선행연구(Schmidt et al., 2023)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코스타리카는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여겨지지만(Keller, Kärtner, et al., 2005; Keller et al., 2009), 도시 중산층 가정의 어머니들은 개인주의 문화권과 유사한 양육행동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골 가정의 어머니들은 기존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났던 근접 양육행동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같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사회문화적 영향과 가치는 개인에게 다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의 한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거리에 따른 주요 양육행동의 양상은 더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가 간 양육행동의 패턴 차이가 오로지 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Ross 등(2017)과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시기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 양육행동 패턴에 시대적 흐름의 변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아의 내적 특성이 이들의 양육행동 패턴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영아의 기질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패턴은 여러 연구에 의해 보고된 바가 있다(Putnam et al., 2002; Spinelli et al., 2018). 예를 들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둔 부모는 신체적 접촉이나 자극을 철회하는 경향이 있고(Putnam et al., 2002), 부정적 정서를 자주 표현하는 아이일수록 어머니와의 대면 상호작용

(face-to-face interaction)을 더 유발한다는 것이다(Spinelli et al., 2018).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고 통제하여 어머니의 원격 및 근접 양육행동 패턴에 있어 문화적 요인이 가지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김수연 (2009).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 행동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313-324.
- 김윤성, 최영은 (2023). 한국 양육자 발화의 질적 속성이 유아의 주의 지속과 어휘 습득에서 가지는 역할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6**(1), 25-45.
<https://doi.org/10.35574/KJDP.2023.3.36.1.25>
- 김윤지, 최영은, 정지은 (2020). 준구조화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공동주의 시도하기: 개인차와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145-164.
<https://doi.org/10.35574/KJDP.2020.6.33.2.145>
-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

- 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109-142.
- 민현숙, 문영경 (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43-56.
<http://dx.doi.org/10.5934/KJHE.2013.22.1.43>
- 박성연, 이사라, 박용임 (2000). 어머니의 가치관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18**(1), 85-95.
- 박철휘 (2012). 한국어와 영어의 생략 현상에 대한 통계적 접근 -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을 중심으로 -. **어문논집**, **66**, 171-192.
- 박현경, 이영희 (2004).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기대 및 치료적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571-596.
- 범지민, 최영은 (2020). 한국 아동의 선택적 신뢰 발달: 5세 아동이 4세와 달리 정보제공자의 연령을 정확도보다 중시할 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1), 53-64.
<https://doi.org/10.35574/KJDP.2020.3.33.1.53>
- 우수경 (2005).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193-211.
-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정선영 (2021). 가족가치관 변화의 연령-기간-세대 효과: 부모의 기대충족과 전통적 성역할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1), 55-79.
<https://doi.org/10.22418/JSS.2021.8.60.2.55>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Bader, L. R., & Fouts, H. N. (2018). Cultural models of infant emotions and needs among the Gamo people of Southern Ethiopia.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497-510.
<https://doi.org/10.1002/imhj.21734>
- Bornstein, M. H., & Cheah, C. S. (2013). The place of “culture and parenting” in the ecological contextual perspective on developmental science. In *Parenting beliefs,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pp. 3-34). Psychology Press.
- Broesch, T., Callaghan, T., Henrich, J., Murphy, C., & Rochat, P. (2010). Cultural variations in children’s mirror self-recogni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 1018-1029.
<https://doi.org/10.1177/0022022110381114>
- Clarke-Stewart, K. A. (1973).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6/7), 1-109.
<https://doi.org/10.2307/1165928>
- Clarke-Stewart, K. A., & Hevey, C. M. (1981). Longitudinal relations in repeated observations of mother-child interaction from 1 to 2½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2), 127-145.
<https://doi.org/10.1037/0012-1649.17.2.127>

- Coleman, P. K., Trent, A., Bryan, S., King, B., Rogers, N., & Nazir, M. (2002). Parenting behavior, mothers' self-efficacy beliefs, and toddler performance on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2), 123-140.
<https://doi.org/10.1080/03004430210888>
- Eagly, A. H., & Wood, W. (2013). The Nature - Nurture Debates: 25 Years of Challenges in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Gender.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8*(3), 340-357.
<https://doi.org/10.1177/1745691613484767>
- ELAN (Version 6.4) [Computer software]. (2022). Nijmegen: 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inguistics.
<https://archive.mpi.nl/tla/elan>
- Greenfield, P.M., Keller, H., Fuligni, A., & Maynard, A. (2003). Cultural pathways through univers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61-490.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4.101601.145221>
- Grewal, D., & Salovey, P. (2005). Feeling Smart: The Sci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 new idea in psychology has matured and shows promise of explaining how attending to emotions can help us in everyday life. *American scientist, 93*(4), 330-339.
<https://doi.org/10.1511/2005.54.969>
- Harris, J. R. (1998). The nur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Adolescence, 33*(132), 960.
- Hoffman, L. W. (1988).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aring goal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0*, 99-122.
<https://doi.org/10.1002/cd.23219884011>
- Holden, E., Buryan-Weitzel, J. C., Atim, S., Biroch, H., Donnellan, E., Graham, K. E., Hoffman, M., Jurua, M., Knapper, C. V., Lahiff, N. J., Marshall, S., Paricia, J., Tusiime, F., Wilke, C., Majid, A., & Slocombe, K. E. (2022). Maternal attitudes and behaviours differentially shape infant early life experience: A cross cultural study. *Plos one, 17*(12), e0278378.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78378>
- Inglehart R., & Welzel, C.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790881>
- Inglehart, R., & Welzel, C. (2010). Changing mass priorities: The link between modernization and democracy. *Perspectives on Politics, 8*, 551-567.
<https://doi.org/10.1017/S1537592710001258>
- Kagitçibasi, Ç. (1996). The autonomous-relational self: A new synthesis. *European Psychologist, 1*(3), 180.
- Kärtner, J., Keller, H., Chaudhary, N., &

- Yovsi, R. (2012). Sociocultur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mirror self-recog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7*(4), 1-98.
<https://doi.org/10.1891/1945-8959.10.1.96>
- Keller, H. (2009). Cultures of infancy. The foundation of developmental pathways. In G. Aikaterini & K. Mylonas (Eds.), *Quod erat demonstrandum: From Herodotus' ethnographic journeys to cross-cultural research: Proceedings from the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9-32). Pedio Books.
- Keller, H. (2016). Psychological autonomy and hierarchical relatedness as organizers of developmental pathways. *Philosophical Transactions Section B, 371*(1686), 20150070.
<http://dx.doi.org/10.1098/rstb.2015.0070>.
- Keller, H. (2018).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Review, 50*, 31-41.
<https://doi.org/10.1016/j.dr.2018.03.001>
- Keller, H., Borke, J., Staufenbiel, T., Yovsi, R. D., Abels, M., Papaligoura, Z., Jensen, H., Lohaus, A., Chaudhary, N., Lo, W., & Su, Y. (2009). Distal and proximal parenting as alternative parenting strategies during infants' early months of life: A cross-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5), 412-420.
<https://doi.org/10.1177/0165025409338441>
- Keller, H., & Kärtner, J. (2013). Development. The cultural solution of universal developmental tasks. In M. Gelfand, C. Y. Chiu, & Y. Y. Hong (Eds.), *Advances in culture and psychology* (Vol. 3, pp. 63-116).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http://dx.doi.org/10.1093/acprof:oso/9780199930449.003.0002>
- Keller, H., Kärtner, J., Borke, J., Yovsi, R.D., & Kleis, A. (2005). Parenting styl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ategorial self: a longitudinal study on mirror self recognition in Cameroonian Nso farming and German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6), 496-504.
<https://doi.org/10.1080/01650250500147485>
- Keller, H., Kuensemueller, P., Abels, M., Voelker, S., Yovsi, R. D., Jensen, H., ... Mohite, P. (2005). *Parenting, culture, and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San José, CR: Universidad de Costa Rica,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Psicológicas.
- Keller, H., Lamm, B., Abels, M., Yovsi, R., Borke, J., Jensen, H., Papaligoura, Z., Holub, C., Lo, W., Tomiyama, A. J., Su, Y., Wang, Y., & Chaudhary, N. (2006). Cultural Models, Socialization Goals, and Parenting Ethnotheories: A Multicultural 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 Psychology*, 37(2), 155-172.
<https://doi.org/10.1177/0022022105284494>
- Keller, H., Yovsi, R., Borke, J., Kärtner, J., Jensen, H., & Papaligoura, Z. (2004).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early parenting experiences: Self-recognition and self-regulation in three cultural communities. *Child Development*, 75, 1745-1760.
<http://dx.doi.org/10.1111/j.1467-8624.2004.00814.x>
- Lavelli, M., Carra, C., Rossi, G., & Keller, H. (2019). Culture-specific development of early mother-infant emotional co-regulation: Italian, Cameroonian, and West African immigrant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55(9), 1850-1867.
<https://doi.org/10.1037/dev0000696>
- Leaper, C., Anderson, K. J., & Sanders, P. (1998). Moderators of gender effects on parents' talk to their children: A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3-27.
<https://doi.org/10.1037/0012-1649.34.1.3>
- LeVine, R. A., Dixon, S., LeVine, S., Richman, A., Leiderman, P. H., Keefer, C. H., & Brazelton, T. B. (1994). *Child care and culture: Lessons from Africa*.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M., & Ramsay, D. (2004). Development of self-recognition, personal pronoun use, and pretend play during the 2nd year. *Child Development*, 75, 1821-1831.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819.x>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pp. 89-13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dx.doi.org/10.1037/10152-003>
- Masek, L. R., McMillan, B. T., Paterson, S. J., Tamis-LeMonda, C. S., Golinkoff, R. M., & Hirsh-Pasek, K. (2021). Where language meets attention: How contingent interactions promote learning. *Developmental Review*, 60, 100961.
<https://doi.org/10.1016/j.dr.2021.100961>
- Masuda, T., & Nisbett, R. E.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ersu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922.
<https://doi.org/10.1037/0022-3514.81.5.922>
- McHale, S. M., Crouter, A. C., & Whiteman, S. D. (2003). The family contexts of gender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12(1), 125-148.
<https://doi.org/10.1111/1467-9507.00225>
- Nielsen, M., Dissanayake, C., & Kashima, Y. (2003).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elf - other discrimination and the emergence

- of mirror self-recognit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6(2), 213-226.
[https://doi.org/10.1016/S0163-6383\(03\)00018-3](https://doi.org/10.1016/S0163-6383(03)00018-3)
- Oh, J., Ju, N., Graham, S., & Choi, Y. (2023). Cultural divergence in children's selective word learning: Korean and Canadian children differ in their trust of adult informants. *Social Development*.
<https://doi.org/10.1111/sode.12707>
- Otto, H. (2014). Don't show your emotions! Emotion regulation and attachment in Cameroonian Nso. In H. Otto, & H. Keller (Eds.), *Different faces of attachment* (pp.215-22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S. Y., & Cheah, C. S. (2005).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s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24-34.
<https://doi.org/10.1080/01650250444000306>
- Putnam, S. P., Sanson, A. V., & Rothbart, M. K. (2002).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children and parenting* (Vol. 1, pp. 255-277).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Ross, J., Yilmaz, M., Dale, R., Cassidy, R., Yildirim, I., & Suzanne Zeedyk, M. (2017). Cultural differences in self recognition: The early development of autonomous and related selves?. *Developmental Science*, 20(3), e12387.
<https://doi.org/10.1111/desc.12387>
- Salovey, P., & Grewal, D. (2005). The Sci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6), 281-285.
<https://doi.org/10.1111/j.0963-7214.2005.00381.x>
- Schmidt, W. J., Keller, H., & Coto, M. R. (2023). The cultural specificity of parent-infant interaction: Perspectives of urban middle-class and rural indigenous families in Costa Rica.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70, 101796.
<https://doi.org/10.1016/j.infbeh.2022.101796>
- Sebastián Enesco, C., Guerrero, S., & Enesco, I. (2020). What makes children defy their peers? Chinese and Spanish preschoolers' decisions to trust (or not) peer consensus. *Social Development*, 29(2), 494-508.
<https://doi.org/10.1111/sode.12416>
- Senzaki, S., Masuda, T., & Nand, K. (2014). Holistic versus analytic expressions in artworks: Cross-cultur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drawings and collages by Canadian and Japanese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8), 1297-1316.
<https://doi.org/10.1177/0022022114537704>
- Senzaki, S., Masuda, T., Takada, A., & Okada, H. (2016). The communication of

culturally dominant modes of attention from parents to children: a comparison of Canadian and Japanese parent-child conversations during a joint scene description task. *PloS one*, *11*(1), e014719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47199>

Spinelli, M., Fasolo, M., Shah, P. E., Genovese, G., & Aureli, T. (2018). The influence of early temperament on language development: The moderating role of maternal input. *Frontiers in Psychology*, *9*, 1527.

<https://doi.org/10.3389/fpsyg.2018.01527>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18-128.

<https://doi.org/10.1037/0022-3514.74.1.118>

Whiting B. B., Edwards C. P. (1988). *Children of different worlds: The formation of social behavior*. Cambridge, MA, US: Harvard University Press.

Cultural Influence on Parenting Behavior: Distal Parenting Strategies Are Dominant in Korean Mother-Infant Interactions

Hyeryung Yoon¹

Youngon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M.A.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²

Parenting behavior that reflects cultural valu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nfants'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self-recognition. While proximal parenting strategies are used more frequently by caregivers who value social relations, distal parenting strategies are preferred more by caregivers who value individualism. No studies have examined predominant parenting strategies used by Korean caregivers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employed a time-sampling method to analyze 54 Korean mothers' parenting strategies during play interactions with their 14 to 20-month-olds. Additionally, our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mothers' parenting strategies and factors related to infants and mothers.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mothers heavily relied on distal parenting strategies, using mutual eye gaze and verbal contact more frequently than proximal strategies such as body contact or directive 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urrent generations of Korean mothers may value independence and autonomy more than social relations and harmony. Moreover,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strategies and infants' gender, age, and annual parental incom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arenting strategies of Korean mothers may induce various changes in their infants' development.

Keywords : Parenting behavior, Distal parenting strategies, Proximal parenting strategies, Cultural influence